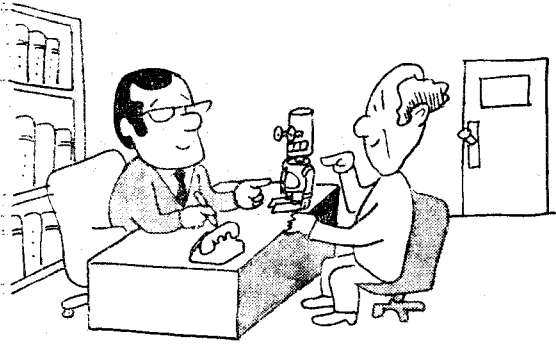


現地에서 본 모두 自己職業에



지난번 韓國發明特許協會의 美國研修團 12人和 같이 美國特許廳에서 副廳長인 Donald Peterson의 직접 Briefing을 들으면서 3천여명 全職員中 審査官이 1천4백명이란데에 다시 한번 놀랐다.

辨理士가 天職이라고 믿고 그리고 美國 땅에 사는 筆者로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들 美國審査官과 接해야만 하고 앞으로 接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에 對하여 두어마디 적어보는 것도 주저넘은 일은 아닌가 싶다.

造物主 하나님께서 人間을 創造할때에 各者에 個性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美國審査官들은 한결 같이 自己들의 職業에 充實함을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오늘날 美國의 原動力은 Professionalism(專門化主義)이라고 하지만 美國審査官의 職名을 받은 이들은 그렇게도 그들의 職業에 Enjoy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크게 2가지를 들면 첫째로 Search에 그렇게 協助的이다. Search에는 特許性여부를 事前에 調查하는 Patentability Search, 特許侵害여부를 調查하는 Right-to-Use Search, 그리고 그 技術分野를 총망라하여 調查하는 State-of-the-Art Search等 여러가지가 있지만 初歩者는 물론 辨理士도 10여만이 넘는 技術分野로 된 美國分類에서 自己가 찾고자하는 技術分野를 알도리가

없다.

설령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確認함이 필요하기에 Search 하고자 하는 技術分野의 審査官을 찾아가는게 보통이다. Excuse me를 하고 만나지만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게 協助해 준다. 自己分野가 아니면 어느 審査官을 찾아가라고 하고, 어떤 審査官은 찾아간 Searcher를 데리고 해당 審査官에까지 안내해주며 너무 친절한 審査官은 직접 Search까지 해주는 고마운 審査官도 있다. 한번은 꽤 복잡한 고분자물질에 대한 發明인데 분류審査官까지 안내해주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20여분 걸어서 다리가 아픈적도 있었다.

둘째로 보정 및 거절통지서인 Office action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도 자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出願한 發明에 가까운 參證을 모두 List를 만들어 복사해서 보내준다. 이때 꼭 알아야할 일은 물론 美特許法 102條 103條시에 參證을 열거하지만 곧바로 특허사정해줄때에도(美國에는 公開 및 公告制度가 없음)그 發明의 技術分野에 대한 모든 參證을 같이 보내준다. 그러기에 이 制度에 生소한 어떤 韓國特許法律事務所나 出願人들은 參證이 많이나왔다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참고하라고 보낸 參證까지도 일일이 비교검토하여 意見書에 써 달라고 Instruction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意見書에서 꼭 필요한 參證은 美特許法 102條 各항이나 103條에 나열된 特許參證(發明者名을 기재함)만을 意見書에서 거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審査官의 거절參證도 아닌 많은 參證들을 왜 보내나? 아마도 出願인지대(개인 경우

「美國審査官의 天職」

充實하고 친절함에 感嘆



陳 今 燮

〈在美辨理士·藥學博士〉

\$170, 회사인 경우 \$340)를 받고 그分野의 Search를 해주는 의미라고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나는 이들 審査官의 天職에 의한 發明者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보며 現在까지의 그分野技術을 알려주며 더 많은 發明을 하라고 격려하는 가혹한 마음에서 일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상 2가지 審査官의 관행은 特許業界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볼때 꼭짓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筆者가 특별히 美國審査官에게만 하늘이 준 天職이라고命名해주고 싶기에 이글의 제목으로 붙여보았다.

사실 特許制度란 發明家의 發明意識을 고취시키고 도와주어서 계속해서 發明을 하게하고 이 發明을 公開하게 하는데에 대한 代價(Rewards)로 일정기간동안 排他獨占權을 준후 이 기간이 만료된 후 萬人이 使用하여 이 世上과 社會를 보다 좋게 만드는데 있다고 본다면 美國審査官의 처사가 어디 天職이 아닐수 있겠는가?

發明者의 Search를 審査官이 도와주어서 그分野의 Up Date技術을 알게하고 그發明의 實際出

願에 있어서도 그分野의 Up Date技術을 審査官이 실제로 Search해주어 發明者의 發明분위기를 최고 좋은조건으로 해주는 것이다.

소련인들은 이를 잘 利用하여 特許를 얻기보다는 Search의 目的으로 미국에 出願한다는 說도 있기는 하지만 수년전 이태리 미라노의 꼬모라는 알프스산 기슭의 호수의 오두막집들에서 벡타이 Designer들이 一生을 그곳에서 살면서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自然과 더불어 Idea를 創出해내는 現場을 가본일이 있다. 지금 이시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自然풍경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달려가 본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技術革新에 의한 世界輸出市場의 振興이 要請되는 이때에 우수한 發明家의 天性을 타고난 韓國發明人들이 美國審査官의 天職에서 얻어지는 큰혜택을 많이 받아서 祖國 韓國은 물론 世界에 이바지하는 때가 빨리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워싱턴 Birch, Stewart, Kolasch & Birch 特許法律事務所에서) <☞>

(案) 第32回 發明教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10月中 第32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 1986年 10月 11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풍림빌딩 10층)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提供)
- ◎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